

국어 감각명사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정수진*

|| 차례 ||

- I. 들머리
- II. 감각명사의 의미 및 개념화
- III. 감각명사의 의미 확장 양상
- IV.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감각명사가 개념화되고 그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추상적인 감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밝힌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감각의 대상이나 감각을 인지하는 몸은 '그릇'으로, 감각은 '그릇 속의 내용물'이나 '이동 대상'으로 개념화하며, 감각의 정도를 높낮이 즉 척도를 통해 개념화한다. 둘째, 감각명사의 기본의미는 특정 감각을 경험할 때 동반되는 개념화자의 주관적이고 인상적인 판단에 의해 그 의미가 확장된다.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인 '본질적 특성'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하고, 특정 행위나 상황에 전이되어 주체가 심리적으로 흡족, 행복, 못마땅함, 괴로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주제어 : 감각, 감각명사, 개념화, 신체화, 혼성 이론, 의미 확장, 개념적 은유 및 환유, 의미구성.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전임강사.

I. 들머리

이 글은 인지언어학의 의미 탐구 관점 중 신체화¹⁾에 기초하여 국어 감각명사의 의미 확장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표상하는 감각명사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며, 의미가 확장되는 인지적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감각’의 개념적 구조가 본질적으로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국어가 색채어, 미각어, 온도어 등의 감각어가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들 감각어는 제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아래와 같이 수많은 학자들이 감각어의 의미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설명을 시도해 왔다.

〈표 1〉 감각어의 의미에 대한 대표적 논의

논의대상		대표적 논의
감각어 전반		최창렬(1980), 권주예(1982), 천기석(1984), 박문섭(1987), 정재윤(1988), 강석준(1989) 등
개별 감각어	색채어	홍선희(1982), 김인화(1987), 이승명(1993), 류무수 외(1998), 송현주(2003) 등
	미각어	천시권(1982), 이승명(1988), 김준기(1999), 정수진(2003, 2005) 등
	온도어	천시권(1980), 양태식(1988), 정재윤(1991), 김준기(2002) 등
	공간감각어	임지룡(1984), 김억조(2009) 등
공감각적 표현		최창렬(1973), 정인수(1997), 김중현(2001) 등

1) ‘신체화(embodiment)’란 인지과학 및 인지언어학의 체험주의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인지과정에서 사람의 몸 또는 신체성의 작용 양상을 가리킨다(Lakoff & Johnson 1999: 36 참조). 체험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지언어학에서는 ‘신체화’의 많은 부분이 일상 언어의 구조와 의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며(임지룡 2008: 77), 인간 인식의 출발점인 신체화를 의미 확장의 진원지로 간주한다. 이로써 다의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의미 확장이 개념화의 작용 방식 및 개념적 구조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개념적 구조의 본질과 의미 확장의 신비를 해명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감각어의 의미에 대한 대표적 논의를 살펴보면, 이들은 대체로 감각동사나 감각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감각어 전반, 혹은 특정 개별 감각어의 어휘 의미 체계를 수립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 감각어와 관련된 (비교적) 초기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 경향이 보이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논자에 따라 감각어의 범위는 다르지만 그 감각어의 의미장(날말밭)을 규명하고 있다. 둘째, 감각어가 비유적으로 전용되는, 즉 의미가 전이되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둔 연구가 잇따랐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의미 확장이 활발한 개별 어휘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가 전이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기술하고 있다. 셋째, 하나의 자극에 대해 여러 감각적 체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공감각적 언어 표현에 주목하여 이들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둔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각 감각들이 서로 교차되는 양상에 따라 공감각적 표현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각어의 의미 양상과 특성을 밝히기 위한 발전적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 역시 감각어의 의미 특성을 밝힌 기존 연구의 연장선으로, 본고에서는 어휘를 분류하고 확인하였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되, 감각어 중 감각명사의 유형과 의미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감각명사는 인간 감각의 개념을 집약적으로 표상하는 어휘인 만큼, 이들 어휘의 의미는 인간의 감각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 의미가 확장된다. 따라서 감각명사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체험에 근거하여 언어를 바라보는 인지언어학적 접근²⁾이 필요하다. 즉 감각명사의 의미가 구성되고 확장되는 양상은 인간의

2) 본 논문의 이론적 틀인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에 대한 ‘체험주의(experientialism)’

신체적 경험이 언어의 의미 구조에 반영되고 제약을 부가하는 양상을 탐색하기에 매우 적합한 주제가 되므로, 신체화에 기초하여 감각명사의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과 특성을 살핀다면, 개념 구조가 본질적으로 신체화되어 있으며 언어의 의미 구조가 이러한 개념 구조를 반영한다는 인지언어학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감각명사의 의미 확장을 신체화 논의의 핵심적인 주제로 간주하고, 국어 감각명사의 의미 확장 양상과 의미 구조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감각의 개념이 언어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국어의 감각명사의 의미 양상과 개념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감각명사가 사용되는 용례를 중심으로 다의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감각명사의 의미가 확장되는 인지적 동기를 밝힐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를 위해 사용한 언어자료는 사전(『표준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이하 『표준』, 『연세』)과 ‘웹 검색 예문’에서 수집하거나 논의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³⁾.

의 관점에서, 언어의 구조와 의미가 인간의 신체화된 경험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인지적 필터를 통해 긴밀히 동기화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임지룡 1997: 17).

3) 본 논문에서 분석에 인용한 언어자료는 ‘감각명사의 의미 정보’와 감각명사가 사용된 ‘예문’이 주를 이룬다. 먼저 ‘감각명사의 의미 정보’는 두 사전의 뜻풀이 항목들을 그대로 참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두 사전은 언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미 정밀하게 구획된 뜻풀이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각명사의 의미 정보는 사전의 뜻풀이를 그대로 참고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감각명사의 ‘용례’는 사전의 예문과 웹 검색 예문에서 수집하였다. 사전의 예문은 해당 어휘의 뜻풀이를 잘 보여 주는 용례를 오랜 기간 구축된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각명사의 전형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용례를 풍부하게 보여 준다. 또한 웹 검색 예문은 뉴스, 웹문서(블로그, 소셜웹 등의 게시글), 전문 자료, 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해당 감각명사의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예문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맞춤법에 따른 수정만 가한 후 이들 자료를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런 까닭에 예문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II. 감각명사의 의미 및 개념화

1. 감각명사의 의미 양상

감각명사는 눈, 귀, 살갓, 코, 혀 등 사람의 감각기관에 가해지는 구체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한다. 이를 감각⁴⁾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 2]에서처럼 전체 감각을 표현하는 명사 ‘느낌’, 시각명사 ‘색’과 ‘명암’, ‘차원’, 청각명사 ‘소리’, 촉각명사 ‘온도’, ‘감촉’, ‘통증(통각)’, 후각명사 ‘냄새’, 미각명사 ‘맛’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감각에 따른 감각명사의 유형과 어휘소

감각	감각동사	감각명사	
시각	보다	색, 명암, 차원	느낌
청각	듣다	소리	
촉각	느끼다	온도, 감촉, 통증	
후각	(냄새) 맡다	냄새	
미각	맛보다	맛	

이 글에서는 전체 감각을 표현하는 명사 ‘느낌’을 비롯하여, ‘색’, ‘소리’, ‘온도’, ‘냄새’, ‘맛’ 등을 각 감각의 특징적 자극으로 삼아, 이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기술된 의미 정보를 통해 감각명사의 의미를 정리한 후 이들 감각명사가 개념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⁵⁾.

4) 감각의 종류에 대해서는 최현배(1980), 권주예(1982), 천기석(1984), 박문섭(1987), 정재윤(1988), 정인수(1997)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의의 결과를 수용하되, 기본 감각이라 할 수 있는 외부감각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시각(색), 청각, 후각, 미각, 촉각(온도) 등 5개의 감각을 표현하는 명사를 중심으로 감각이 개념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심사 과정에서 감각명사의 범위를 ‘색, 소리, 온도, 냄새, 맛, 느낌’으로 제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감각명사는 이 외에도 ‘빛’, ‘향기’, ‘명암’, ‘차원’, ‘감촉’, ‘통증’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본 논의에서는 우선 ‘느낌’을 전체 감각을 표현하는 명사로 보고 논의의 대상을 삼았다. 그리고 시각을 비롯하여 청각,

먼저, 『표준』과 『연세』에서는 ‘느낌’의 의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표준』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기운이나 감정

『연세』 느껴지는 것. 느낀 것

‘느낌’은 우리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의 표상이다. ‘달콤한 느낌(미각 ‘맛’), 메케한 느낌(후각 ‘냄새’), 은은한 느낌(청각 ‘소리’), 부드러운 느낌(촉각 ‘촉감’), 밝은 느낌(시각 ‘색’) 등에서처럼 ‘느낌’은 각 감각을 표현한다. 또한 ‘경쾌한 느낌, 갑갑한 느낌, 무서운 느낌, 미심쩍은 느낌’ 등에서처럼 어떤 상황의 분위기나 그 상황에서의 감정 및 생각도 ‘느낌’으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맛’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 | | |
|------|---|
| 『표준』 | ①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에 느끼는 감각
②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③ 체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 |
| 『연세』 | ① 혀로 느낄 수 있는 시거나, 달거나, 짜거나, 쓰거나, 매운 여러 가지 감각
② 겪어서 알게 되는 느낌이나 기분, 또는 분위기
③ [~ 맛의 꼴로 쓰이어] 어떤 것으로부터 받는 아픈 자극
④ (사물이나 현상에서) 즐기거나 느낄 수 있는 본래의 특징
⑤ 무엇을 그만두지 못할 정도의 재미
⑥ 좋다고 생각되는 느낌
⑦ 살면서 겪는 경험 |

두 사전의 의미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맛’은 기본적으로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뚝은맛’처럼 사람이 혀로 인지하는 감각을 표현한다.

후각, 미각, 촉각(중 온도감각), 시각(중 색채감각) 등의 외부감각을 표현하는 감각명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각 감각의 특징적 자극이다. 이로써 ‘색’, ‘소리’, ‘온도’, ‘냄새’, ‘맛’을 각 감각의 대표적 감각명사로 삼아 개념화 및 의미 확장 양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고소한 맛, 시원한 맛, 은은한 맛, 깊은 맛’ 등에서처럼 다른 감각 기관으로 인지하는 감각을 통해 ‘맛’을 표현하기도 하고, ‘음식 맛은 손 맛, 상쾌한 공기의 맛, 색다른 맛, 감칠맛 나는 소리’ 등 ‘맛’을 통해 다른 감각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마음으로 인지하는 기분이나 감정(‘죽을 맛, 기다림의 맛, 새로운 맛’ 등), 재미(‘신혼 살림 맛, 돈 벌이 맛, 노는 맛’ 등), 경험(‘가난의 맛, 삶의 쓰라린 맛’ 등), 본질(‘여자인 맛, 한국적인 맛’ 등) 등 ‘맛’은 다양하게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다.

한편, ‘냄새’의 의미는 두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 | |
|------|-------------------------------------|
| 『표준』 | ①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
| | ②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낱새 |
| 『연세』 | ① 코로 맡을 수 있는 기운 |
| | ②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느낌. 낱새 |

‘냄새’는 ‘반찬 냄새, 향긋한 냄새, 썩어진 냄새’ 등 사람이 코로 인지하는 감각을 표현한다. 그리고 ‘달콤한 냄새, 신선한 냄새, 맑은 냄새’ 등에서 보듯이 다른 감각 기관으로 인지하는 감각을 통해 ‘냄새’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냄새’는 ‘삶의 냄새, 외로움의 냄새, 트로트 냄새, 수상한 냄새’ 등에서처럼 어떤 분위기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소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 |
|------|---------------------------------------|
| 『표준』 | ①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에 울리어 귀에 들리는 것 |
| | ② 말 |
| | ③ 사람의 목소리 |
| | ④ 여론이나 소문 |
| 『연세』 | ① 귀에 들리는 것 |
| | ②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 |
| | ③ 말 |
| | ④ 한국의 전통적인 창이나 노래 |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 은은한 소리, 우렁찬 소리’ 등 귀를 통해 인지되는 감각을 말한다. ‘소리’는 ‘날카로운 소리, 맑은 소리, 길고 높은 소리’ 등에서 보듯이 다른 감각 기관으로 인지하는 감각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작은 소리로 얘기를 나누다’ 등),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말(‘싫은 소리’ 등), 여론이나 소문(‘권력의 분산을 요구하는 소리’ 등)이 ‘소리’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온도’의 의미 정보를 두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표준』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

『연세』 덥고 찬 정도 또는 그 도수

‘온도’는 ‘따뜻함과 차가움’처럼 살갓을 통해 인지되는 감각 중의 하나이다. ‘온도’는 ‘높은 온도, 낮은 온도’처럼 시각을 통해 그 정도가 표현되고, ‘열정의 온도, 슬픔의 온도, 희망의 온도’ 등에서처럼 어떤 상황이나 감정의 정도를 표현할 때 ‘온도’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감각 명사에 비해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가 적는데, 그 이유는 감각의 정도가 수치로 표시되고 표현 대상도 분명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감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준』 ①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물리적 현상.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물감 따위의 안료
 ② 같은 부류가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말.
 ③ 색정이나 여색, 색사(色事) 따위를 뜻하는 말

『연세』 ① 빛을 받아 물체가 나타내는 빛깔

‘색’은 ‘빨간 색, 파란 색’ 등 눈을 통해 인지되는 감각 중의 하나이다.

‘색’은 ‘고운 색, 따뜻한 색, 요란한 색’ 등에서 보듯이 다른 감각 기관으로 인지하는 감각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자기만의 색을 잘 살린 글’ 등)을 ‘색’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2. 감각명사의 개념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각명사는 외부 자극에 대해 우리 몸이 인지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표상한다. 이러한 감각명사의 의미는 동사나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자극 → 느낌[감각명사] ⇔ 느낌표현[감각동사, 감각형용사]

이런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감각명사와 결합하는 동사를 통해 우리가 감각을 어떻게 파악하고 개념화하는지를 살펴보자.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인 ‘감각’은 우리 신체 기관을 통해 인지되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구성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개념화자의 주관적이고 인상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신체의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의 표상인 감각명사는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추상적 개념의 감각명사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동사를 통해 구현된다.⁶⁾

6) 각 감각명사의 의미를 구현하는 동사는 이 글의 예문에서 보인 용례보다 훨씬 다양하나, 그 면면을 살펴보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크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 구현 양상을 아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감각명사에 따른 개별적 양상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한 분석은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1) 느낌

- ㄱ. 일반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도 되나 조금 거친 느낌이 **난다**.
- ㄴ. 처음부터 100까지 세면 눈이 얼얼한 느낌이 **든다**.
- ㄷ. 장단지가 딱딱해지는 느낌이 **온다**.
- ㄹ. 클리너에 묻혀서 혀를 긁어주면 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준다**.

우리의 신체적 감각 경험을 한 단계 추상화한 감각명사 ‘느낌’은 그릇 혹은 그릇 속의 액체, 물건 등을 통해 개념화된다. (1)에서 보듯이 ‘나다’, ‘들다’, ‘오다’, ‘주다’ 등의 동사를 통해 ‘느낌’이 구현되는데, 이는 곧 감각을 인지하는 우리의 몸을 그릇으로 하여 ‘느낌’이라는 대상이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2) 맛

- ㄱ. 뜨거운 기운으로 구워내기 때문에 삶은 달걀보다 더 고소한 맛이 **난다**.
- ㄴ. 김치가 폭 익어서 맛이 제대로 **들었다**.
- ㄷ. 매운탕은 식으면 맛이 **떨어진다**.
- ㄹ. 훨씬 저렴하게 요리의 맛을 **높일** 수 있다.

감각명사 ‘맛’ 역시 그릇 혹은 그릇 속의 액체가 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개념화된다. (2)에서 보듯이 ‘나다’, ‘들다’, ‘떨어지다’, ‘높이다’ 등의 동사를 통해 ‘맛’이 구현되는데, 이는 곧 감각의 대상인 음식물을 그릇으로 하여 ‘맛’이라는 대상이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3) 냄새

- ㄱ. 마당에 어린 연기에선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났다**.
- ㄴ.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다**.
- ㄷ. 화장실에서 뿌리니 쿼퀴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
- ㄹ. 탄집게 위에서 바글바글 끓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감각명사 ‘냄새’는 (3)에서 보듯이 ‘나다’, ‘가득하다’, ‘사라지다’, ‘찌르다’ 등의 동사를 통해 구현된다. 이는 곧 감각의 대상을 그릇으로 하여 ‘냄새’라는 그릇 속의 내용물이 이동하거나 차는 것으로, 또는 물건이나 날카로운 물체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4) 소리

- ㄱ. 쳐다보는 재소자들이 마른침을 꼴딱 삼키는 소리가 **났다**.
- ㄴ. 공장문을 열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 ㄷ. 발자국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 ㄹ. 폭풍우가 고향 소리를 흔적 없이 **삼켜** 버렸다.

감각명사 ‘소리’는 (4)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다’, ‘쏟아지다’, ‘사라지다’, ‘삼키다’ 등의 동사를 통해 구현된다. 이는 곧 감각의 대상을 그릇으로 하여 ‘소리’라는 그릇 속의 내용물이 이동하는 것으로, 또는 물건이나 음식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5)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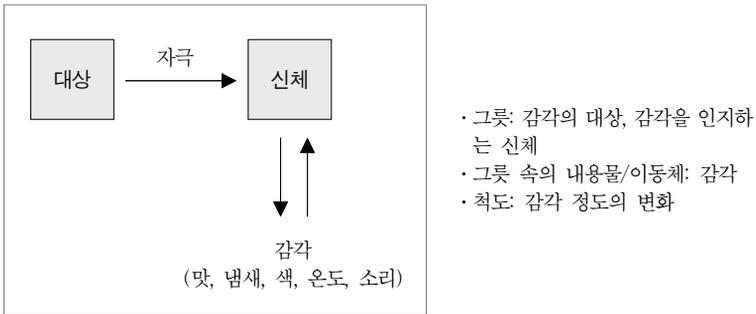
- ㄱ. 검은 소금을 다시 녹이면 연분홍 색이 **나온다**.
- ㄴ. 어느새 단풍이 타오르듯 곱게 색이 **들었다**.
- ㄷ. 본래의 새하얀 색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잿빛으로 변해버린다.
- ㄹ. 분화구 속에는 절굿대들이 아직 색을 **간직한** 채 머물러 있었다.

감각명사 ‘색’은 (5)에서 볼 수 있듯이 ‘나오다’, ‘들다’, ‘잃어버리다’, ‘간직하다’ 등의 동사를 통해 구현된다. 이는 곧 감각의 대상을 그릇으로 하여 ‘색’이라는 그릇 속의 내용물이 이동하는 것으로, 또는 물건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감각의 대상이나 감각을 인지하는 몸은 ‘그릇’으로, 감각

은 ‘그릇 속의 내용물’이나 ‘이동 대상’으로 개념화한다. 또한 감각의 정도를 높낮이, 즉 척도를 통해 개념화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감각명사의 개념화 도식



이는 감각명사의 개념을 구현하는 동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느낌’, ‘맛’, ‘냄새’, ‘소리’, ‘색’, ‘온도’ 등의 감각명사가 나다, 들다, 나오다, 가득하다, 쏟아지다, 흘러나오다, 들어있다, 담다, 빠지다, 벗어나다, 넣어주다 등의 동사를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감각의 대상이나 감각을 인지하는 신체를 그릇으로 파악하고, 감각은 그릇 속의 내용물(주로 액체)이나 이동하는 실체로 개념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맛이 떨어지다’, ‘소리를 높이다’, ‘온도가 내려가다’ 등에서 보듯이 감각명사가 높다, 낮다, 높이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등의 동사를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보아, 감각의 정도가 커지고 작아지는 변화의 양상을 우리는 위-아래 방향 혹은 높낮이 척도로 개념화한다.

Ⅲ. 감각명사의 의미 확장 양상

감각명사는 일차적으로 (신체 외부의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인지적 반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각명사의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본유적 특성, 특정 행위나 상황에 대한 심리적 태도로 확장된다. 아래에서 감각명사의 의미가 각 감각을 근원으로 하여 추상적인 특성이나 개념화자의 감정 등으로 확장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대상이나 현상의 본래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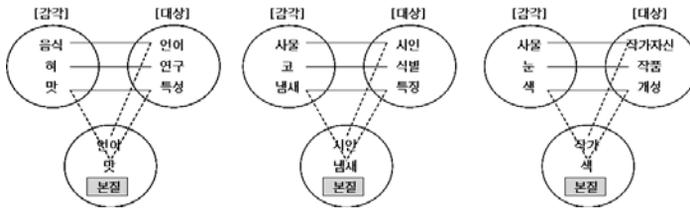
감각명사는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에 전이되어 그 대상이나 현상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을 전달한다.

- (6) ㄱ. 언어의 **맛**을 통해서 깊은 사색의 생활을 만들어 주었다.
 ㄴ. 진우 씨한테는 아무래도 시인 **냄새**가 나.
 ㄷ. 유명 작가들이 점차 자신만의 **색**을 죽이고 대중성 있는 글을 쓰는 것 같아.

예문 (6)에서 보듯이, ‘언어’, ‘시인’, ‘자신’ 등의 대상이 지닌 본래의 특징이 특정 감각을 표상하는 감각명사를 통해 표현되는 것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음식 고유의 특성은 맛으로 알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서, 감각명사 ‘맛’에 기대어 어떤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직접 보지 않아도 지각이 가능한 냄새를 통해 어떤 대상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경험이 토대가 되어, 감각명사 ‘냄새’에 기대어 몇 가지 단서로 어떤 대상의 특징을 추측하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색이 특정 대상의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는 경험은 감각명사 ‘색’을 통해 어떤 대상의 특징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감각명사가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그림 2>7)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림 2> '언어의 맛', '시인 냄새', '자신만의 색'의 의미 구성



예문 (6ㄱ) '언어의 맛'으로 의미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감각 영역과 특정 대상 영역이 설정되고, 두 영역간의 교차 사상이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두 영역의 부분적인 요소 '언어', '맛', '특성' 등이 혼성영역에 투사되어 새로운 통합관계를 맺고 새로운 의미 '본질적 특성'이 생성되는 것이다. (6ㄴ)의 '시인 냄새', (6ㄷ)의 '자신만의 색' 등의 표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미 확장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2. 행위나 상황에 대한 심리적 태도

감각명사는 행위나 상황에 전이되어 그에 대한 주체의 심리적 태도를 전달한다.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환유를 토대로 한 은유를 통해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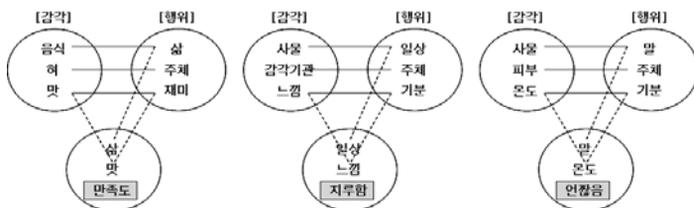
7) <그림 2>는 의미구성의 방식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개념적 혼성 이론을 모태로 한 것이다. 즉, 환유를 토대로 한 은유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Fauconnier의 '네 공간 모형(four-space model)'에서 착안한 것인데, 이는 은유적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두 영역 사이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사상(mapping: 실선)을 통하여 은유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상호관계가 부분적으로 투사(projection: 점선)되어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 (7) ㄱ. 지금은 세상의 더러움을 조금 맛본 나이가 되어서는 사는 **맛**이 딱 떨어지네요.
 나. 일상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보자.
 ㄷ. 따뜻한 문자를 받으며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격적이고 업무적인 말은 언성은 높지만 **온도**는 차갑습니다.

예문 (7)에서 보듯이, ‘삶’이나 ‘일상’, ‘말’ 등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재미’나 ‘지루함’, ‘언짢음’ 등의 감정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각명사를 통해 표현한다. 음식의 맛을 볼 때 유쾌함이나 불쾌함 등의 감정이 동반되는 경험을 통해서, 감각명사 ‘맛’에 기대어 어떤 상황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감각을 경험할 때에는 그 경험에 대한 개념화자의 주관적이고 인상적인 심리적 판단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토대가 되어, 감각명사 ‘느낌’에 기대어 그에 동반되는 감정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한편 어떤 사물의 온도, 즉 사물이 지닌 따뜻함이나 차가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유쾌함이나 불쾌함 등의 감정이 동반되는 경험을 통해서, 감각명사 ‘온도’에 기대어 어떤 말을 듣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이처럼 감각명사가 특정한 행위나 상황에 대한 개념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그림 3>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림 3> ‘살 맛’, ‘일상적인 느낌’, ‘말의 온도’의 의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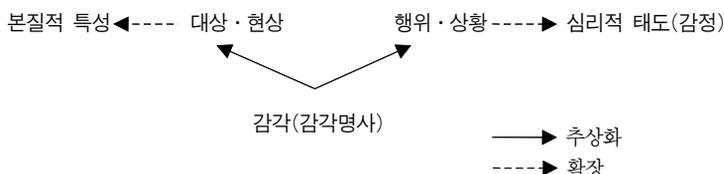


‘사는 맛이 떨어지다’의 경우, <그림 3>에서 보듯이 감각 영역에서는 ‘맛’의 부분적인 속성이 부각되고, 이는 은유적으로 주체의 행위 결과나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만족의 정도, 기분을 이해하기 위한 근원영역으로 설정된다. 행위 및 상황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및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의 정도 ‘재미’가 부각된다. 그리고 현실의 행위 및 상황은 은유적으로 맛에 의해 개념화되는 목표영역으로 설정된다. 여기에서 근원영역인 미각과 목표영역인 행위 및 상황이 환유에 의해서 더 정밀한 의미로 부각 또는 활성화되어 두 영역간의 교차 사상이 동기화된다. 그리고 나서 “상태에 대한 불만족은 나쁜 느낌이다”의 은유에 의해 감각 영역과 행위 및 상황 영역간의 교차 사상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두 감각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인 ‘흡족, 행복, 못마땅함, 괴로움’ 등의 ‘만족도’의 의미가 생성되는데, 이는 각 영역의 부각된 요소들이 혼성영역에 투사될 때 만들어진⁸⁾. (7ㄴ)의 ‘일상적인 느낌’, (7ㄷ)의 ‘말의 온도’ 등의 표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미 확장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감각명사의 기본의미는 특정 감각을 경험할 때 동반되는 개념화자의 주관적이고 인상적인 판단에 의해 그 의미가 확장된다.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인 ‘본질적 특성’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하고, 특정 행위나 상황에 전이되어 주체가 심리적으로 흡족, 행복, 못마땅함, 괴로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각명사의 의미 확장 양상은 <그림 4>의 도식처럼 구조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8) 이러한 의미구성의 과정을 거쳐 ‘살맛’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나 의욕’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써 『표준』에 등재되어 있다.

〈그림 4〉 감각명사의 의미 확장



IV. 마무리

이 글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추상적인 감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감각명사가 개념화되고 그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추려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는 감각의 대상이나 감각을 인지하는 몸은 ‘그릇’으로, 감각은 ‘그릇 속의 내용물’이나 ‘이동 대상’으로 개념화하며, 감각의 정도를 높낮이 즉 척도를 통해 개념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신체적 경험 → 개념화 → 언어화’의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언어의 구조와 의미가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정신과 몸의 산물이라는 인지언어학의 설명을 증명할 수 있었다.

둘째, 감각명사의 기본의미는 특정 감각을 경험할 때 동반되는 개념화자의 주관적이고 인상적인 판단에 의해 그 의미가 확장된다.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인 ‘본질적 특성’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하고, 특정 행위나 상황에 전이되어 주체가 심리적으로 흡족, 행복, 못마땅함, 괴로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 논문

- 강석준, 「현대 국어의 감각어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권주예, 「감각동사의 의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김억조, 「국어 차원 형용사의 의미 대립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김인화, 「현대 한국어의 색채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준기, 「국어 미각어의 고찰」, 『한국어 의미학』 5, 한국어학회, 1999, pp.249-269.
- _____, 「온도어의 의미 고찰」, 『어문학』 78, 한국어문화, 2002, pp.21-45.
- 김중현, 「국어 공간각 표현의 인지 언어학적 연구」, 『담화와 인지』 8-2, 담화와 인지언어학회, 2001, pp.23-46.
- 류무수 외, 「우리말 색채감각형용사의 정량화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조형학회지』 7-1, 한국색채교육학회, 1998, pp.86-145.
- 박문섭, 「우리말 형용사의 감각어 연구」, 『어문논집』 20, 중앙어문학회, 1987, pp.125-146.
- 송현주, 「색채 형용사의 의미 확장 양상」,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회, 2003, pp.131-148.
- 양태식, 「우리말 온도 어휘소 무리의 의미구조 2」, 『한글』 201·202, 한글학회, 1988, pp.124-173.
- 이승명, 「국어 미각 표시 어군의 구조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1988, pp.335-358.
- 이승명, 「국어 색상어의 연구」, 『홍익어문』 11, 홍익어문연구회, 1993, pp.305-321.
- 이종열, 「국어 비유적 의미의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임지룡, 「공간감각어의 의미 특성」, 『배달말』 9-1, 배달말학회, 1984, pp.119-137.
- 정수진, 「국어 ‘단맛’ 표현의 인지적 의미 해석」,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회, 2003, pp.303-320.
- _____, 「국어 ‘맛’ 표현의 의미 확장 양상-‘단맛’과 ‘쓴맛’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27, 문학과언어학회, 2005, pp.71-88.
- _____, 「미각어의 의미 확장 양상」, 『한국어 의미학』 18, 한국어 의미학회, 2005,

pp.149-174.

- 정인수, 「국어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연구」, 『현대문법연구』 11, 현대문법학회, 1997, pp.163-180.
- 정재윤, 「국어 온도 감각 동사의 어휘체계」, 『국어교육』 7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1, pp.15-28.
- 천기석,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 천시권, 「온도어휘의 상관체계」, 『국어교육연구』 12-1, 국어교육학회, 1980, pp.1-14.
- _____, 「국어 미각어의 구조」, 『어문연구』 7, 경북대학교 어학연구소, 1982, pp.1-6.
- 최창렬, 「공감각적 의미의 전이」, 『한국언어문학』 11, 한국언어문학회, 1973, pp.107-138.
- 홍선희, 「우리 말의 색채어 낱말발-현재 사용되고 있는 색채어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 한성어문학회, 1982, pp.121-136.

2.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노대규(1988), 『국어의미론 연구』, 국학자료원.
-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혜원(2004),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 정재윤(1988), 『우리말 감각어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천시권 · 김종택(1991), 『국어의미론』, 서울: 형설출판사.
- 최창렬(1980), 『한국어의 의미구조』, 서울 : 한신문화사.
- 최현배(1980),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Langacker, R.W.(1991). *Concept, Image, and Symbol-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Lakoff, G. & Johnson, M.(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Basic Books: A Member of the Perseus Book Group.

Abstract

A Cognitive Analysis of the Meaning Extension
of Sensual Nouns in Korean

Jeong, Su-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aspects of conceptualisation of 'sense' from the viewpoint of the cognitive experientialism and embodiment. The following two characteristics of the conventionalized expressions of 'sense' are found out: (1) The basic meaning of 'sensual nouns' are extended by subjectivity and impressive judgement of the subject when feeling a sense. Namely, the sensual nouns make and communicate the new meaning 'intrinsic attribute' by transmitted to object or phenomena. Moreover they communicate the emotion that the subject feels mentally in situation surrounded the subject by transmitted to an act or a situation. (2) Their structures and meanings are coherently motivated by physical experiences.

Key-words : sense, sensual nouns, conceptualisation, embodiment, blending theory, meaning extension, conceptual metaphor and metonymy, meaning construction

정수진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한국어학전공 전임강사

주소 : (712-715)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전화번호 : 053-819-1330

전자우편 : yesom@dhu.ac.kr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